

#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호학적 연구 -한·중·일을 중심으로-

민정아<sup>†</sup>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Re-orienting Fashion of Modern Fashion by the Approach of Semiotics -Focusing on Korea, China, and Japan-

Jeong-Ah Min<sup>†</sup>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9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2일)

###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henomena of dress and ornaments expressed in them by analyzing Re-orienting Fashion (which is a system of signs and symbols) based on the theories of semiology in the search for the Korean identity by examining a Re-orienting Fashion that is being reinterpreted. Re-orienting Fashion performs the role of signs that act in the spread of Oriental culture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in the Orient. It also has a meaning that converts the world of fashion to a new direction. When analyzing the system of signs and symbols in Re-orienting Fashion (based on the theories of semiology) the conclusions are that an eclectic symbol system has been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the pursuit of modernization in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with post-modernism. A nature-friendly symbol system has been shaped as a natural silhouette in terms of the combination with Eastern philosophy that searches for a harmony with nature according to ecological trends. The ideal of a symbol system means the introduction of design elements in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of the East as a reje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and as an alternative to the fixed pattern of the West.

**Key words:** Re-orienting Fashion, Semiology, Eclectic symbol system, Nature friendly symbol system, Ideal symbol system; 리오리엔팅 패션, 기호학, 절충적 상징체계, 자연친화적 상징체계, 이상적 상징체계

### I. 서 론

오늘날의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필두로 한 여러 예술사조의 영향으로 절충과 해체의 모순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원화된 시각에서 벗어난 탈 이원

논리와 다원주의적 특성은 오리엔탈리즘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들의 관념 체계 안에 당연한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을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즉, 리오리엔팅 패션(Re-orienting Fashion)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은영, 박하나(2000)는 서양인이 동양을 단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mja419@empal.com

지 취미와 흥미, 또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문화, 가치관, 사상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고, 임영자, 김선영(2000)은 20세기 후반의 동양풍 선호 현상을 그 이전과 구분하여 'NEW ORIENTALISM'이라고 명명하고, 동양에 대한 새로운 미학의 발견과 동양을 종속적 비하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미적 표현의 기제로 삼았다고 하였다. 박상오(2004)는 1960년대 이후 오리엔탈리즘이 최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되어져 왔던 오리엔탈리즘이 새롭고 다양한 패션디자인으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은숙(2004)은 비서양문화권의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과 함께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공통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였다. 즉, 동양을 미개한 문명으로 바라보던 과거 오리엔탈리즘과는 달리 동양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 동양의 가치관, 정신사상의 전파,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Niessen et al.(2003)는 『The Globalization of Asian Dress: Re-orienting Fashion』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세계화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 과거의 세계화가 무비판적으로 서양제품과 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거절을 야기하고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상실한데 반해, 현대의 세계화는 문화적인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양인들의 세계화 추구에 의한 패션을 'Re-orienting Fashion'이라 정의하였는데, 'Re-orienting Fashion'이란 과거 오리엔탈리즘과는 달리 동양 내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을 재해석하고 있는 흐름으로 통일화된 이질성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리오리엔팅 패션은 동양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서양 또한 주체가 되고 동양, 서양 모두가 수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리엔탈리즘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서구적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이 아닌 에스닉, 퓨전, 젠 등의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어 문화적 전파라는 기호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통복식의 세계화를 통해 동양의 정신문화를 표현하는 동양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포함하

고 있는 현대의 오리엔탈리즘을 'Re-orienting Fashion'으로 간주하고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에코(U. Eco)는 '열린 작품(L'oeuvre ouverte)'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인 관습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여러 측면을 기호현상으로 포착하는 문화기호론을 발전시켰는데, 복식 또한 각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듯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복기호들이 모여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매체인 복식은 하나의 문화현상이자 의미작용의 산물이므로 기호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오리엔팅 패션의 고찰을 위해 현대 기호학의 연원을 이루고 있는 소쉬르와 바르트(R. Barthes)의 기호체계를 토대로 하였으며 리오리엔팅 패션의 범위는 파리, 밀라노, 뉴욕, 한국의 2000-2008년도까지의 S/S와 F/W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오리엔탈 패션의 범주는 아시아 3국-한, 중, 일로 한정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앞서 전통복식의 현대화를 이루어 세계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문화의 재분석이 한국적 리오리엔팅 패션의 정체성과 한복의 세계화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II. 본 론

### 1. 기호학의 이론적 고찰

방브니스트(Benveniste)는 '인간 자신이 하나의 기호이고 그의 사상이 하나의 기호이며 그의 하나하나의 감정이 기호'라고 정의하였고 소쉬르(F. Saussure)는 기호학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호들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기호학이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리오리엔팅 패션에 작용하고 있는 기호학의 구성 요소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 코드(code), 신화가 있는데 기표란 어떤 것을 대표하는 운반체로 들어오는 기호의 부분, 즉 청각영상을 뜻하고 기의란 해석자가 찾아낸 의미와 개념을 뜻한다. 즉,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복식디자인의 형태, 색상, 재질, 무늬 등

물리적 실체를 복식의 기표라 할 수 있고 각 디자인의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의로 볼 수 있다. 이 중 기의는 외연적 의미(denotation)와 내연적 의미(connota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연적 의미는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있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직설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내연적 의미는 사람이 그 기호에 덧붙이는 암시적 의미로 주관적 느낌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연적 의미는 같은 의미라도 문화마다 다르며 같은 문화 속에서 습득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의미작용의 결과이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 즉 사회적 협약관계이다. 따라서 기호는 ‘집단적 관습’, ‘계약’, 또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관습화된 기호사용의 패턴, 즉 코드의 공유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작용이 공유된 코드인 기호의 교환과정이라면 의미작용이란 현실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반대로 현실세계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코드화의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작용과 코드화는 동시에 일어나며 커뮤니케이션은 코드화를 필요로 하지만 의미작용은 코드화와 동시에 탈코드화를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롤랑바르트는 언어로 쓰인 의복이라는 발화체를 기표, 기의, 기호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의복기호가 의상의 기표가 되어 의상 잡지 안의 의미와 결합되어 기의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호가 여러 가지 의미화 되어 이차언어 수준의 기표로 변환될 때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신화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의미로 치환하는 것이며 표상적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특수한 이미지에 대한 언술을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단계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해체 혹은 조립하는 기호의 코드화에는 여러 가

지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개입된다. 따라서 구성원의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복식기호 또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삶의 기반이 되는 문화, 정치, 경제 체제의 배경 속에서 기호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 2.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호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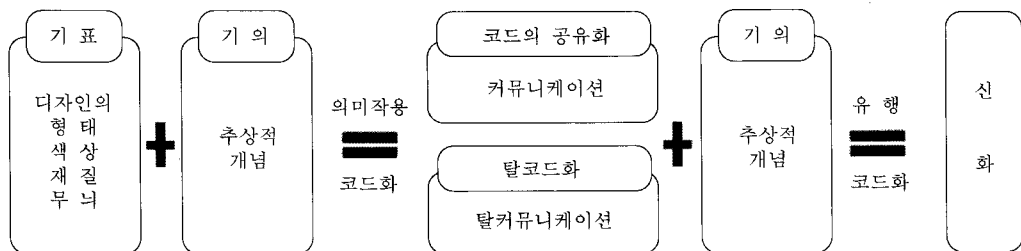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해 감각적 측면의 시각영상과 비감각적, 관념적 측면의 개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외형적 기호로 추상적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복잡한 사회의 구조를 색이나 형태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뛰어난 표현수단이다. 즉, 복식은 그 자체가 기표 또는 기호로 작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복을 기호체계로 간주하고 기호학의 구성요소 중 리오리엔팅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기표와 기의, 의사와 공시, 그리고 신화를 중심으로 리오리엔팅 패션의 가치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표와 기의

#### (1) 한국

전통한복은 형태, 소재, 색상, 문양 모두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의 기호체계이다. 사각형의 평면구성인 치마는 착용을 통해 형태를 완성하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으로 움직일 때마다 형태가 변형되는 자연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향아리 실루엣의 공간 속에는 도교적 가치관의 하나인 허(虛), 즉 여백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 저고리와 두루마기 또한 여유로운 평면재단을 통해 인체를 자연스럽게 감싸줌과 동시에 스스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허’를 형성한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순수한 정서라고 할



<그림 1> 복식의 기호작용

수 있으며 면직물, 마직물, 견직물과 같은 천연소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자연에 순응하여 도(道)를 거스르지 않는 한국인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오리엔팅 패션은 과거의 한복처럼 형태, 색상, 소재, 문양에 모두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한국 리오리엔팅 패션은 전통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 패턴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패턴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림 2>~<그림 5>는 한복의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의 실루엣, <그림 6>~<그림 7>은 견직물, 마직물 등의 소재가 기표가 되어 한국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8>~<그림 10>은 화조문, 화분, 기하문 등의 전통문양이 한국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11>은 오방색에 의한 색 배합이 아닌 유행색에 의한 색동이 기표가 되어 색상 그 자체만으로 한국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표로 작용하지 않고 다른 디자인 요소와 더불어 한국 이미지를 표현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복에 내포되어 있던 의미가 그대로 활용되기 보다는 한복의 디자인 요소가 한국을 표현하는 기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iessen et al.(2003)는 『The Globalization of Asian Fashion』을 통해 전통복식의 현대화에 성공한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 베트남의 아우자이 등을 사례로 들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한국의 한복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표출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현 한복에 대한 연구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 사료되므로 한복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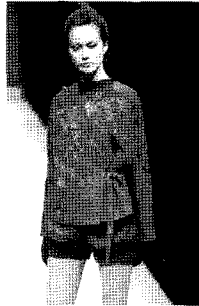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 리오리엔팅 패션은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이신우, 진태옥, 이영희, 홍미화, 이상봉 등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어 서구 패션디자인에 한국적 조형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신예 디자이너들 또한 한국의 패션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한국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2) 중국

청대의 치파오는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바지, 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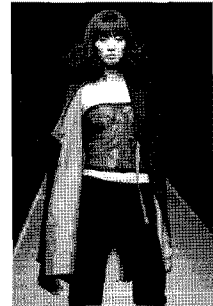
<그림 2>  
이영희,  
2003 F/W



<그림 3>  
이영희,  
2003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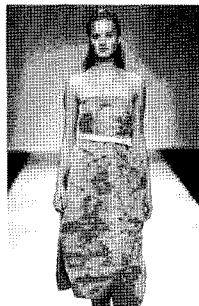
<그림 4>  
이영희,  
2004 F/W



<그림 5>  
이영희,  
2004 F/W



<그림 6>  
이영희,  
2004 F/W



<그림 7>  
이영희,  
2003 F/W



<그림 8>  
이상봉,  
2006 S/S



<그림 9>  
이상봉,  
2006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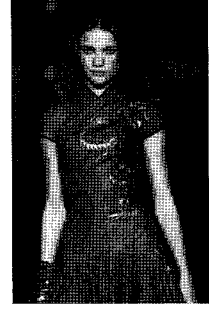
<그림 10>  
이주영,  
2005 S/S



<그림 11>  
이상봉,  
2002 F/W



<그림 12>  
Leonard,  
2004 S/S



<그림 13>  
Roberto Cavalli,  
2003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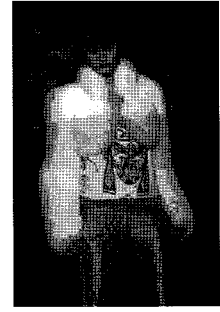
리로 구분하여 착용하며,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통해 허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색상의 배합 또한 음양오행에 의한 상생의 이치를 따라 배합하고, 전통 문양 각각에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호체계이다. 치파오는 1920년대 말 서양의 영향에 의해 허리가 타이트해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시대적 흐름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인한 동양에 대한 관심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문호 개방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서양 디자이너들에 의해 응용되고 있다.

중국의 치파오는 현대화에 성공한 전통복식으로 <그림 12>와 같이 만다린 칼라와 매듭단추를 포함하는 치파오 형태, <그림 13>—<그림 14>와 같이 적색, 금색이 기표가 되어 중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 뿐 아니라 현 시대의 자연주의에 부합되는 천연소재인 견직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적 전통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소재로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벽사구복 등의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중국의 문양은 <그림 12>—<그림 14>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 문양 등의 전통문양이 그 자체가 기표로 작용하여 중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그림 15>와 같이 의미 없이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 전통복식의 응용은 본래의 중국 전통복식의 의미가 활용되기 보다는 현대 복식에 중국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가 혼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치파오 형태의 관능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중국 내에서도 치파오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대화에 성공한 전통복식 중의 하나로 자리



<그림 14>  
Roberto Cavalli,  
2006 F/W



<그림 15>  
Just Cavalli,  
2006 F/W

잡게 되었다.

### (3) 일본

일본의 기모노는 착장방식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평면구성 재단으로 몸에 여유가 있어 형성되는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사각형 실루엣과 오비를 통해 형성되는 H라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모노의 형태는 서구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세기 초 서구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받아들여진 일본의 이미지는 이러한 기모노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영향이 강하여 주로 평면적 재단법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본의 미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일본 예술이 서구 유럽 예술과 패션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Zen이라는 문화적 전파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현대 패션에 미친 일본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비구축적 디자인은 인체에 맞게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 복식을 재단해 오던 서구인들에게 평면 재단에 무형, 무색, 무성

의 특성을 가진 일본 디자인은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일본 리오리엔팅 패션은 <그림 16>~<그림 18>과 같이 기모노 형태, 오비, 평면 구성, 레이어드 룩을 통해 일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림 19>~<그림 21>과 같이 일본의 정신사상을 근간으로 한 일본의 무형, 무색, 무성의 비구축적 디자인은 새로운 신화가 되어 현대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리오리엔팅 패션은 기모노의 현대화라기보다는 동양미학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패션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호작용

복식기호는 집단의 가치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의사 전달수단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복코드가 전달, 수용되는 의미작용은 유행이라는 특성을 통해 나타난다. 그

러나 리오리엔팅 패션은 공유된 코드가 아닌 탈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된 히피에 의해 시작되었다.

탈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적으로 공유된 정보가 아닌 개인의 감정이나 미의식을 의미,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의미전달보다는 창작자 개인의 세계 표출이며 창작자와 수용자에 따라 의복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전달이 중요하지만은 않으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때로는 모호하기도 하다.

1960년대 히피 패션은 전쟁에 대한 반발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동양복식, 장신구 등의 착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의복코드를 교란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의성을 바탕으로 생성된 표현이 아닌 개인의 의사표출인 히피의 복식표현은 창작자와 수용자간에 서로 다른 의미작용을 수반하는 탈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히피의 의복코드가 수용, 전달됨에 따라 탈코드화가 생성되었고 개인적인 의미를 내포하던 히피의 복식특성은 1960년대의 유행코드가 되었다. 이처럼 기호는 이데올로기적, 자의적 조작인 코드에 의해 탈코드화하여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기도 한다.

Japanism 또한 탈커뮤니케이션 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비구축적 패턴에 의한 Japanism은 서구의 정형화된 패턴을 관습화된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탈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양의 미학을 내포하고 있던 새로운 패턴이 탈코드화를 야기하고 일본 디자인의 특성 또한 수용, 전달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작용 즉, Japanism이라는 새로운 복식코드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리오리엔팅 패션은 탈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된 히피를 시작으로 Japanism, Fusion, Zen 등의 시대적인 유행코드를 생성하였으며, 특히 일본 디자이너들의



<그림 16>  
Blumarine,  
2003 S/S



<그림 17>  
Gucci,  
2003 S/S



<그림 18>  
Celine,  
2008 F/W



<그림 19>  
Yohji Yamamoto,  
2006 F/W



<그림 20>  
Yohji Yamamoto,  
2000 S/S



<그림 21>  
Yohji Yamamoto,  
2000 S/S

레이어드룩, Zen, 비정형적 디자인은 일차적 기의에 동양미학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2차적 기의가 생성됨으로써 신화로 자리 잡게 되어 동양미학에 대한 문화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패션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 3. 리오리엔팅 패션의 상징체계 분석

우리의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철학과 심리학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상징체들이며 그러한 상징체의 기본이 기호이다. 복식기호 또한 많은 의미를 가진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이 큰 상징체인데 이는 복식에 사용되어진 색이나 형태로부터 상기되는 이미지의 연상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결속력을 형성하고 의복에 내재된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즉, 복식에 있어서의 이미지는 기호상징체인 리오리엔팅 패션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작용으로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리오리엔팅 패션에 나타난 기표와 기의들은 동양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호체계로 작용하였으며 현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이 더해져 새로운 상징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체계로서의 리오리엔팅 패션을 분석,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절충적 상징체계

Roach와 Eicher는 역사적으로 의복이 정치적 힘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르트가 언급했듯이 복식은 단순히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자리하며 1차적 기호작용에 그치지 않고 2차적 기의와 결합하여 신화체계로 변화한다. 리오리엔팅 패션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신화체계 또한 리오리엔팅 패션의 시작 기점인 1960년대의 정치, 경제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이은 대량 학살과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인류의 멸망에 대한 공포심의 극대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성, 갈등, 해석상의 경쟁, 균열과 불연속, 다수성, 모호성, 복합성과 같은 가치들을 포괄하며 절충과 해체의 모순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다원주의적이며 모호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문학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양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맞물려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하게 되었다.

<표 1>은 한국, 중국, 일본 리오리엔팅 패션의 절충적 상징체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양복식과 서양복식의 요소, 전통복식과 현대 복식의 양면가치를 표현함으로써 리오리엔팅 패션의 절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일본 디자이너들은 미완성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이미 완성된 것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불완전한 구성을 통해 완성과 미완성의 양면가치를 발생시키는 절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미완성을 통한 자기 완결성의 부정이며, 이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존재의 측면이며 여백의 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동양미학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리오리엔팅 패션의 절충적 상징체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부합되어 자국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양 스스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동양의 가치관과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통해 동양적인 문화, 가치관, 사상 등을 전파하는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






#### 2) 자연친화적 상징체계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기계, 기술, 과학문명 등의 발달로 인해 비롯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1960년대에 일반화되어 ‘환경보호’라는 의미의 에콜로지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에콜로지(ecology)란 지리학, 동식물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생태학(bionomics), 인간사회 생태학 또는 자연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는 1960년대 환경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공해, 오염, 보존과 보호 등과 같은 인간중심적 관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연환경’을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식, 세계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과도한 과학문명의 발달이 야기한 생태학적

<표 1>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표와 기의-절충적 상징체계




구분	기 표	기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한 국	 유영현, 2005 F/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전통 모란 문양</li> <li>-한국적 이미지</li> <li>• 서구식 입체패턴의 슬리브리스 상의와 벨벳소재의 바지</li> <li>• 쉬폰소재를 허리띠로 응용하고 모피 목도리의 캐주얼, 럭셔리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전통문양과 현대 소재인 벨벳과 쉬폰의 접목</li> <li>-절충적 이미지</li> </ul>
	 이상봉, 2006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사각형으로 재단된 평면구성의 치마와 색동 도입</li> <li>-한국적 이미지</li> <li>• 서구적 입체패턴의 재킷</li> <li>• 광택성 소재 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적 패턴의 상의, 직사각형 평면구성과 색동의 접목</li> <li>-절충적 이미지</li> </ul>
중 국	 Bluemarine, 2003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파오 형태를 응용한 슬리브리스 상의</li> <li>-중국 이미지</li> <li>•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관능적 이미지 형성</li> <li>• 일본 전통의 흑색 오비로 포인트를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의 정형적 패턴에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 형태에 일본의 전통복식 요소인 오비를 매치</li> <li>-절충적 이미지</li> </ul>
	 Celine, 2006 F/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덜미를 걸쳐 입거나 여러겹 겹쳐 입는 기모노의 착장방식</li> <li>-일본 이미지</li> <li>• 서구적 패턴의 미디길이 스커트와 세겹으로 겹쳐 입은 상의의 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에서 보여지는 레이어드 룩을 서구적 패턴에 응용</li> <li>-절충적 이미지</li> <li>-일본 디자인 요소의 코드화</li> </ul>
일 본	 Chloe, 2006 F/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색계열의 원피스, 가죽바지, 쉬폰 상의</li> <li>• 패션코드로 정착한 레이어드 룩의 착장 방식을 현대적으로 심플하게 표현</li> <li>-일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적 패턴에 일본 전통소재인 견직물과 현대 소재인 가죽, 쉬폰의 매치</li> <li>-절충적 이미지</li> </ul>

위기로 인한 에콜로지애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인류 멸망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증대되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하여 자연주의를 기저에 두고 표출되는 동양복식의 수용을 야기하였다. 이는 1960년대 천연섬유, 천연화장품, 대체 의약품, 건강식품 등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에 중점을 두었던 히피 문화가 대량 패션생산업자와 캐워크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면서 시작되었고, 때마침 경제적으로 부상했던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과 중국에의 관심이 이러한 현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양의 복식은 평면구성의 재단을 통해 스스로 그러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에 허, 즉 여백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천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도에 순응하는 동양인의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모



<표 2>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표와 기의-자연친화적 상징체계

구분	기 표	기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시(마직물) 소재의 자연스러운 구김 효과 응용</li> <li>-한국적 이미지</li> <li>· 황색 계열의 대로 포인트를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소재인 마직물의 사용</li> <li>· 천연염색</li> <li>-자연친화적 이미지</li> </ul>
	이영희, 2003 F/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치마의 향아리 실루엣 응용</li> <li>·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전통문양</li> <li>-한국적 이미지</li> <li>· 백색 바탕에 적색, 흑색 문양 프린트로 포인트를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여유로운 실루엣</li> <li>· 동양화 프린트 문양</li> <li>-자연친화적 이미지</li> <li>-허의 미의식을 내포한 여백의 미</li> <li>-자연주의적 세계관 함축</li> </ul>
	이상봉, 2006 S/S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스텔 황색의 견직물 소재에 용무늬를 도입한 원피스</li> <li>-중국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실루엣</li> <li>· 천연소재인 견직물의 사용</li> <li>-자연친화적 이미지</li> </ul>
	Chloe, 2000 S/S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위적이고 불규칙한 주름으로 만들어진 깃, 베스트와 치마를 연결시킨 흑색 원피스</li> <li>-일본 이미지</li> <li>· 흑색 실 스티치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표현한 기하학 문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러운 주름이 형성된 치마는 신체를 편안하게 해 주고 움직임 때마다 다른 느낌 연출</li> <li>· 나뭇잎을 형상화한 장식</li> <li>-자연친화적 이미지</li> </ul>
	Issey Miyake, 2003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나무 문양이 프린트된 사각형의 평면재단으로 이루어진 비정형적 구조의 백색 계열 상의와 녹색 계열 스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형의 평면재단</li> <li>· 대나무 문양과 자연에 가까운 녹색 계열의 색상</li> <li>-자연친화적 이미지</li> </ul>
	Issey Miyake, 2006 S/S		

든 형식적 절차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2>는 한국, 중국, 일본의 자연친화적 상징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평면 재단의 여유, 인체에 대한 최소의 기능성만을 고려한 실루엣,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천연소재의 사용을 통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채금석(2004b)은 '현대 일본 패션에 나타난 반꾸밈 미학'을 통해 일본 패션의 형태를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로 구분하였는데 '의도적인 빈곤'을 통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전통형식을 파괴하고 솔기 처리를 하지 않거나, 구성선을 밖으로 보이거나, 안감과 걸감을 바꾸거나, 심지어 안감을 넣지 않는 등의 표현으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

하고 있다. 즉, 일본 디자이너들의 동양적 미학은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일본의 반꾸밈 정신문화가 바탕이 된 것으로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걸러낸 후에 떠오르는 이념, 즉 종교적 '공(空)'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양복식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에콜로지 경향과 부합하여 동양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서양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도 추구되고 있으며 리오리엔팅 패션의 자연친화적 상징체계는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이데올로기로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관이며 철학이라 할 수 있다.

### 3) 이상적 상징체계

1972년 MIT 연구팀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통해 세계가 현재의 인구증가, 경제성장, 공업화, 자원소비를 계속해 간다면 자원고갈, 식량부족,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10년 이내에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생태학적 위기와 인류 멸망에 대한 공포는 자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물질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주의에 입각한 동양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동양과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의상과 장신구를 도입하여 그들 특유의 정신세계를 표출했던 히피 문화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동양복식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구의 정형적 패턴의 한계에 고민하던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의복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 즉 입기 위한 의복이라는 의복의 목적론과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성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하였다. 이들은 의복형·자체를 부정하여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지는 여밈과 험라인을 만들거나 다양한 종류와 길이의 옷을 걸쳐 입는 레어드를 미학적으로 발전시켜 단정하게 차려입는 정형적인 복식이나 착용방법을 무시하고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새롭고 신선한 감각을 표현하였다. 즉,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관습화된 의복의 형식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서구 디자이너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기존과는 다른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신체의 형태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리오리엔팅 패션의 이상적 상징체계는 <표 3>과 같이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서구적 패턴에의 대안책으로서 동양복식의 아이템을 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리오리엔팅 패션은 현 시대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동양문화를 수용하는 기호상징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형성된 리오리엔팅 패션의 신화는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의 가치관과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동양미학이 자연과의 합일, 조화를 추구하는 공통적 가치관에 의해 생성되어 현 시대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행현상으로 표현되어 왔던 오리엔탈리즘을 '리오리엔팅 패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복식현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리오리엔팅 패션을 기호학의 기본개념으로 분석하고 복식의 기호상징체계를 분석·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복식의 현대화의 추구 및 포스트모더니즘사상의 결합으로 생성된 것으로 동양복식과 서양복식의 요소, 전통복식과 현대 복식의 양면가치를 표현함으로써 리오리엔팅 패션의 절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거 오리엔탈 패션이 미적 욕구와 이질적인 문화의 도입을 통한 호기심 충족으로서 동양의 디자인 요소를 서구적 패턴에 도입하였던 데 반해 리오리엔팅 패션은 동양 스스로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동양미학을 전파하는 절충적 상징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과도한 과학문명의 발달이 야기한 생태학적 위기로 인한 에콜로지 경향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양사상과 결합하여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자연을 거스르지

<표 3> 리오리엔팅 패션의 기표와 기의-이상적 상징체계

구분	기 표	기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속치마를 응용한 원피스로 앞뒤 비대칭적인 헐라인 도입</li> <li>-한국적 이미지</li> <li>· 추상적, 기하학적 프린트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평면재단의 실루엣</li> <li>· 치마의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여백의 미</li> <li>-자연주의 세계관: 정형화된 서구적 패턴에의 해결책 및 에콜로지에 의한 이상적 이미지</li> </ul>
	Alexander McQueen, 2005 S/S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의 입체재단을 응용한 패턴에 전통 견직물을 사용한 황색 계열 드레스</li> <li>· 가운데 매듭에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된 동양적 이미지의 장신구</li> <li>-중국 이미지</li> <li>· 노출로 인한 관능적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소재인 실크의 사용과 동양적 이미지의 장신구</li> <li>· 장신구 위 가슴 사이에 그려진 열쇠 문양</li> <li>-에콜로지에 의한 이상적 이미지</li> </ul>
	Anna Molinari, 2006 S/S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지의 다리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재킷은 착용하였으나 팔이 밖에 있는 비정형적 구조</li> <li>-일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무형, 무색 디자인</li> <li>-서구의 정형화된 패턴에의 해결책으로서의 이상적 이미지</li> <li>-일본 패션의 코드화 및 신화</li> </ul>
	Yohji Yamamoto, 2006 F/W		
			
Yohji Yamamoto, 2000 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의와 하의가 연결되어 구분이 되지 않는 비정형적 구조의 디자인</li> <li>· 무채색의 사용</li> <li>-일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적 구조의 일본의 무색 디자인</li> <li>· 평면재단을 통해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인체를 은폐시킨 무형의 실루엣</li> <li>· 서구의 정형화된 패턴에의 해결책으로서의 이상적 이미지</li> <li>-일본 패션의 코드화 및 신화</li> </ul>	
Yohji Yamamoto, 2000 S/S			

않는 천연소재인 실크의 사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관이며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양문명에 대한 반발과 정형적인 서구 패턴의 대안책으로서 동양 전통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단순한 동양취미와 호기심을 떠나 현 시대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동

양문화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구의 정형적 패턴과는 다른 평면구성의 재단법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무형, 무색, 무성의 디자인이 기표가 되어 이상적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리오리엔팅 패션은 과거 오리엔팅 패션과는 달리 다의성(多義性)을 내포한 기호상징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한 동양취미나 호기심이 아닌 문화적 전파를 야기하는 기호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동양복식의 통일화된 이질성을 추구함으로써 동양 내에서의 움직임 이끌어 내는 시대사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세계화란 통일화된 이질성, 즉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코드를 내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질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 일본 등 동양의 많은 나라가 세계화에 성공한 지금 한국은 아직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미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의 개발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현진, 채금석. (2003).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복식표현 연구-조선시대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 이경희. (2000a).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4(1), 24-33.
- 김희정, 이경희. (2000b).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 (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4(3), 313-322.
- 박상오. (2004). 오리엔탈리즘 패션디자인의 아시아 지역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0(1), 91-99.
- 신항식. (2003).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서울: 문학과 경계사.
- 에코, 움베르토. (1980). *기호: 개념과 역사*. 김광현 역 (2000). 서울: 열린 책들.
- 음정선, 채금석. (2005). *한국과 일본의 전통색채관과 복식에 관한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영, 배주원, 이경희. (2004). Japanism을 반영한 패션디자인 전개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 54(2), 39-52.
- 이은영, 박하나. (2004). 한국 패션의 오리엔탈리즘.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811-819.
- 이은숙.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25-33.
- 임영자, 김선영. (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50(4), 37-51.
- 소두영. (1997). *상징의 과학 기호학*. 고양: 인간사랑.
- 조정미, 김예형.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zen; 선)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6), 263-175.
- 채금석. (2000). 한국 전통복식의 정신문화 연구: 포(袍)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3(11), 13-30.
- 채금석. (2004a).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복식*, 54(3), 113-127.
- 채금석. (2004b).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복식*, 54(8), 129-146.
- 소쉬르, 페르디낭. (1972). *일반언어학 강의*. 오원교 옮김 (1974). 서울: 형설출판사.
- 한명숙. (1987). *한국 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명숙. (1988).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경춘사.
- Niessen, S., Leshkovich, A. M., & Jones, C. (2003). *The globalization of Asian dress: Re-orienting Fashion*. S.A.: Berg.